

39. 자랑의 면류관

신앙고백

찬 송 : “사랑하는 주님앞에” (찬송가 220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데살로니가전서 2:17-20

말씀묵상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19-20절) ‘자랑의 면류관’이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가 받은 월계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이 받을 상급이라고 여길 정도로 성도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열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1.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의 연조가 짧고, 외부의 핍박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방문하고자 힘썼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2.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됨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하나 됨을 깨뜨리고 성도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지내는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히10:24-25).

3.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진심어린 사랑과 애정 없이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인생의 목적을 바꾼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맺는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하나님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말씀적용

1. 관계가 소원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2.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20절을 암송합니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국내 미자립교회를 후원합니다.

2. 예배 일정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3. 성경통독 강해

임창세목사의 성경통독강해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주일은 제외)

4. 코로나 종식과 교회개혁, 예배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종식과 교회개혁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해서 하루 10분씩 전교인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목장별 전화 및 화상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과 화상심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6. 개척교회를 위한 선교헌금

코로나19로 인해 개척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은 개척교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오니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현물 - 최미연 집사께서 조모상 장례후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입원 - 박기자 권사(성남월병원, 허리골절)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양미화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시무장로 : 박심원 임완민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홍지에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제116권 제41호

2020. 10. 11.

The Six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눅 5: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 찬 송 25장 다 갈 이

2·3부

예배의부름 인 도 자
※임 재 찬 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 갈 이

※교 독 문 53. 시편 121편 다 갈 이
참 회 기 도 다 갈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278장 다 갈 이

1부:정재하 집 사

2부:임완민 장 로

3부:임수정 청 년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장 12-14절(신약142) 인 도 자
누가복음 2장 26-38절(신약89)

찬 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영 상

말 씬 주만 바라볼찌라(6) 임창세 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0

월 봉사위원

안내위원	1부 : 2부 :	다음 주일 예배 기도
헌금위원	1부 : 박옥련 2부 : 김영선 장영미	1부 : 곽형준 집사 2부 : 박심원 장로 3부 : 방지원 청년
식당봉사	이번주 : 다음주 :	

결 단 찬 양 보혈을 지나 다 갈 이
헌 금 기 도 인 도 자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송 영 부르신 곳에서 다 갈 이
※축 도 임창세 목사
□ 3부 설 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5:1-12) 양미화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14절】

¹²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¹⁴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예 배 안 내 >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30
교 육 부 서	유 치 부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청소년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2020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세계선림회
김영생(인도네시아) 흥광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총여신도회 선교 : 아시아 주민교회(조혜숙)

◆ 성서일독 통독자 명단(6-11주)

강복순	김금란	김남일	김명숙	김영선	김예진	김용수
김재정	김정예	김향순	김현섭	나차금	박기자	박영애
박옥년	박정아	박춘남	서소영	신연호	신영숙	안상분
안순조	양미화	우희연	유인숙	유향순	이경미	이만순
이미숙	이복덕	이복음	이상철	이순자	이용준	이인임
이혜정	임근실	임한옥	장영미	전명숙	전상기	정광옥
정귀자	정순진	정영숙	정장환	정재하	주리에	주영순
주종찬	최미연	최운교	한규봉	홍지현	황영옥	(55명)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119:105)

삼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임창세, 주리에 강미경 강복순 강호성, 김지윤 권명희 김금옥 김수매 김재정
민지혜 박심원, 윤관순 박해영, 신동희 방정원 박지희 석장환 신연호, 안상분
양미화 윤주영 임영희 전상기 조병운, 박영애 주경숙 주영순 최진수, 최영란
추사순 JIN XIUMEI

◆ 감사헌금

임창세, 주리에 김영선 김용수, 이미숙 김주은 남영옥 박정아 손미자 손영애
안홍옥 유병희 이순자 박재락 전명숙 전옥자 정장환 주영순 주종찬 최광순
최운교 최인선 추사순 하보름 무명2

◆ 선교헌금

곽상화 김재정 손미자 주영순 주종찬 최진호 추사순

◆ 건축헌금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기관헌금	목장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513,000	3,798,000	950,000				20,25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